

2번째 교육심리학자의 이야기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비맥락화된 학습경험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실제 생활 속에서의 경험은 더 유리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하고 실생활에 의미 있게 전이되기 위해서는 실제 세계의 상황 하에서 실제적인 과제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이라도 어떤 친숙한 실생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효과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학습은 상황과 분리된 상태보다 상황 내에서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와 수강생들과의 대화

- 수강생 A: 근데 교수님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 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
- 수강생 A: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교사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쳐 주면 학생은 무조건 그것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수학공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주입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학생들한테 유의미한 과제를 제공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수업방식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 몇몇 수강생들: (수강생 A 생각에 동의하는 표정)
- 여러분의 생각은?

나와 수강생들과의 대화

- 수강생 B: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 언뜻 보기에는 첫 번째 이야기는 학생의 생각과 학생이 놓인 상황을 무시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학생의 생각과 학생이 놓인 상황을 존중해 주는 것 같습니다만
- 음....결론부터 말하자면 첫 번째 이야기나 두 번째 이야기나 같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줄 수 있나요?

■

나와 수강생들과의 대화

- 수강생 B: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학생들을 위해서 유의미한 학습환경이나 학습과제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는데’ 그건 따지고 보면 어른의 생각이 아닌가요? 아무리 교사나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유의미한 학습환경 혹은 학습과제를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그것을 어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학습환경과 학습과제가 계속 유의미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 나: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갑자기 생각 난건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께서 제가 하도 공부를 안하고 놀다 보니 TV를 일시적으로 외가에 갖다 둔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하기 좋은...위의 2번째 이야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의미한 환경을 만드시려고 하셨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나는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고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고 친구 집에서 늘 TV를 보고 집에 돌아왔거든요!
- 수강생들: (웃음)

나와 수강생들과의 대화

- 수강생 C: 교수님 말이 맞아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땐가. 그때 한참 유행했던 EQ 감성지능 책상을 사오셔서 저에게 여기서 책을 읽고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 잘 들어간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저를 위해 EQ가구를 이용해서 유의미한 학습환경을 만들려고 하셨는데...저는 그 유의미한 환경 그리고 EQ책상에서 엄마가 싫어하시는 만화책을 몰래 읽고 있었거든요.
- 수강생들: (웃음)

나와 수강생들과의 대화

- 나: (웃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한 이야기들 더불어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수강생 B가 이야기 한 것처럼 학습전이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는 실은 같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위의 두 가지 이야기는 학습에 있어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아동 혹은 학습자의 생각이나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게다가 위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아동 혹은 학습자가 아니라 연구자 그리고 교사 혹은 부모가 주인공이라는 생각도 들구요.
- 수강생 B: 그런 것 같습니다.

나와 수강생들과의 대화

- 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심리학에서는 「학습전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 의하면 A라는 상황 예컨대 학교에서의 수학수업에서 배운 덧셈, 뺄셈, 곱셈 같은 등식을 X라고 했을 때 사람은 그 A라는 상황에서 배운 X라는 지식을 B라는 상황 예컨대 오늘 우리가 수업시간에서 이야기를 나눈 슈퍼마켓에서 커피를 구입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죠.
- 그런데 오늘 수업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온 것처럼 그렇게 X라는 지식을 바로 적용하지는 않지 않던가요? 나는 이러한 학습전이론의 맹점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문제해결같은 행위를 할 때 학습전이론은 상황, 관계, 만남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나와 수강생들과의 대화

- 수강생 A: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심리학이론이 뭔가 우리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고 담아내지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 나: 아주 좋은 발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고 담아내는 이론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혹 이런 생생한 삶의 모습을 제대로 담아내는 이론이 혹시 없는지 찾아보는 게 이론을 만드는 것 보다 수고를 덜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나와 수강생들과의 대화

- 오늘 제가 경험한 여러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려준 여러 흥미로운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잘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늘 상황, 관계, 만남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학습전이론」은 그 상황, 관계, 만남을 배제하고 거기서부터 분리된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한 것 같구요.

나와 수강생들과의 대화

- 또 한 가지 오늘 수업에서의 중요한 발견은 학습전이론의 첫 번째 이야기는 ‘상황’이야기가 아예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이야기는 ‘상황’이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음에도 상황, 관계, 만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 결국은 ‘상황’을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서도 학습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할 학습자의 상황, 관계 그리고 만남을 철저히 무시해 버리는 아이러니컬한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해야 할까요.